

‘달리는 코스피’ 美 관세협상 등 복병 뚫고 날아 오르나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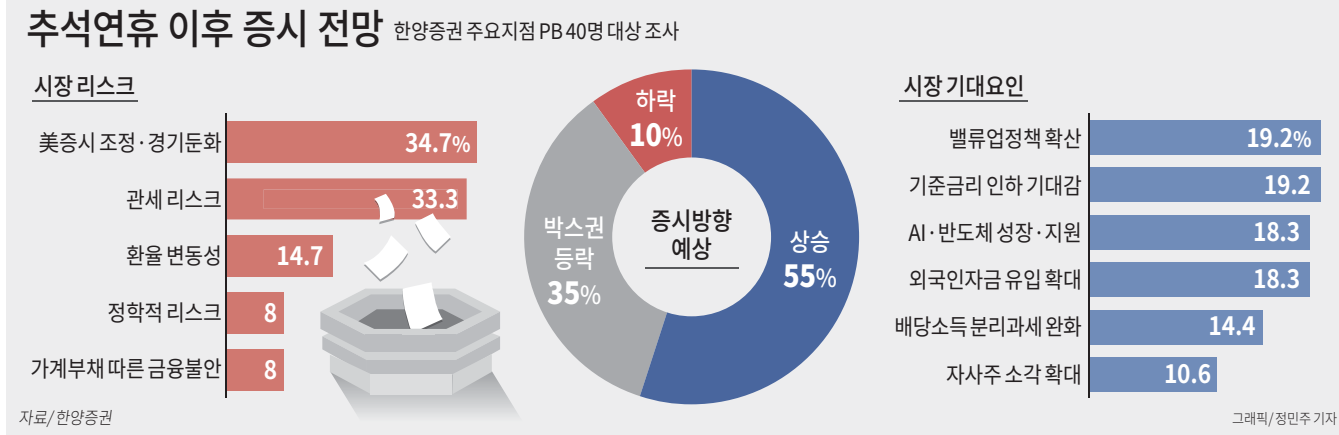
3분기 코스피 고공행진에도
개인 투자자 18조 가까이 매도

한양증권 PB 40명 대상 설문서
55% “추석이후 증시 상승할 것”
박스권 35%, 하락세 10% 그쳐

“누군가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했는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내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코스피·코스닥 ETF 투자의 수익률(26.4%)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라고 하는 건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몇 가지 과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코스피가 고공행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3분기에만 18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10월 코스피가 개미들을 ‘국장’ (국내 증



시)으로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자’ 행렬과 3차 상법 개정안에 힘입어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 높아진 환율 부담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안갯속 관세 협상vs 정책 기대감

지지부진한 대미 투자 협상은 증시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히며 파장을 낳았다. 3500억 달러는 8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약 84.1%에 해당한다. 만약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금액을 7월 구두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압

박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관세 협상 리스크는 환율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도 낮아졌다. 지난 25일 미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가 3.8%로 발표되자 금리 인하 신중론이 힘을 받았다.

한양증권이 주요 지점 PB 40명을 대상으로 ‘연휴 대비 투자 전략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불안은 확인된다.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시장 리스크는 미국 증시 조정 및 경기 둔화(34.7%)와 관세 리스크(33.3%)였다. 환율 변동성(14.7%), 지정학적 리스크(8%),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8%)이 뒤를 이었다.

시장 호재로는 밸류업 정책(19.2%)과 기준금리 인하(19.2%)를 꼽

았다. 정부정책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성장 및 정책지원과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가 각각 18.3%를 차지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14.4%), 자사주 소각 확대(10.6%) 등이 꼽혔다.

호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10월 코스피 상단 3500선

증권가는 10월 증시를 박스권으로 본다. 한양증권 설문조사에서 PB 절반이상은 연휴 이후 증시 흐름에 대해 ‘상승 가능성이 높다’(55%)고 봤다. 박스권

과 하락은 각각 35%, 10%에 그쳤다. 한국투자증권은 10월 코스피 등락 범위로 3200~3500을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250~3550을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을 좌우하는 환율도 부담 레벨로 올라간 상태”라며 “10월 주식 시장은 방향성 예측과 관련해 이익과 환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4분기 수출 경기는 이전보다 개선될 전망”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업황이 나아진 업종은 일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시장 금리는 국내외 금리 인하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두 변수를 종합하면 주목해야 하는 업종은 단연 IT로, 반도체, 하드웨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체 업종 순환매 장세는 저물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재고활동 감소, 반도체 현물가격 상승세, 계약가격 관련 우호적 소식 등을 고려할 때 3분기에도 9월 코스피 약진을 견인하던 반도체업종이 유리하다”고 했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금융시장은 물가둔화와 금리안정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동시에 고평가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전형적인 과도기 국면”이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외화조달 강화… 증권금융 글로벌화 최선”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김정각 사장 “디지털 금융 시대
투자자 재산 보호 역할 확대할 것”

“증권금융은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내외 영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권업권 지원을 강화하겠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화 조달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증권금융의 글로벌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투자자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외 금융당국, 정책기관, 금융업계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전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증권사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한국증권금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자본시장도 안정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며 네 가지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시장안정 기능 지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국제 컨퍼런스’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속 확충 ▲생산적 금융 동참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내부통제 강화 ▲글로벌화 및 디지털 혁신 등이다.

이 금감원장은 “새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을 핵심 과제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정책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도전의 실패는 재도전이 가능하지만 무너지면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며 “단순히 규제 준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은 실질적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 문화를, 기업은 주주 이익을 지키는 건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컨퍼런스는 두 개 세션과 특별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망의 역할과 과제’를 주

제로 진행됐다.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자 보호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안정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흥 자본시장의 성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제금융공사(IFC),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관계자들이 신흥국 자본시장 성장 사례와 증권금융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마지막 특별강연에서는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디지털파트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칠 변화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국제 컨퍼런스 이후에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증권금융기관들이 모여 ‘증권금융 협약식’을 진행하고, 다자간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신하은 기자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꺾였다

FIU, 거래 규모·시총 모두 줄어
전기 대비 이용자수·신규상장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올 상반기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모두 줄어드는 등 성장세가 꺾였다. 다만 전기 대비 이용자 수는 늘고 신규 상장도 증가하며 시장 자체는 확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30일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신고한 25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17곳·보관·지갑업자 8곳)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실적과 시장 동향을 집계한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0조

5000억원)보다 14% 줄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2% 감소했다. 영업손익도 6185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446억원)보다 17% 줄었고, 원화 예치금은 6조2000억원으로 반년 만에 42% 급감했다. 반면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6개월 새 107만명(11%) 늘었다. 거래 가능 개인 이용자 가운데 30대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40대(27%), 20대 이하(19%), 50대(19%), 60대 이상(7%) 순이었다. 아울러 50만원 미만 소액 보유자가 70%에 달했고, 등록 계정수는 2444만개로 6%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는 중복 포함 1538개로 181개(13%) 늘었다. 원화마켓 신규 거래지원은 207건으로 반년 만에 80% 늘었고, 코인마켓 신규 상장은 2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순자산 5000억

KB운용, 3000억 돌파 2개월 성과

KB자산운용은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시리즈가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3000억원을 돌파한 지 2개월만의 성과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의 3개월,

6개월, 1년 기준 수익률은 각각 24.22%, 49.15%, 59.0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23개 해외커버드콜 ETF 중 1위에 해당한다.

KB자산운용은 현재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을 포함해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등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3종을 운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